



우리시대 참스승

일동중학교 교장 박경수

일동지역 명문학교 육성에 힘모아

2008년부터 서울대 등 명문대 진학 기대

“학생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도록 운동장을 확장하고 잔디를 식재하여 잔디구장을 조성했으며 일동지역 농촌 경관력 향상을 위해 우수학생이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일동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력한 결과 2008년이나 2009년도에는 서울대학교 등 서울시내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배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1일자로 일동중학교에 부임하여 우수학생 배출을 위해 노심초사 열정을 아끼지 않고 노력해온 박경수(61·사) 교장이 일동중학교와 일동고등학교의 비전에 대해 밝혔다.

박 교장은 일동지역 초·중·고를 연계한 가운데 실시되고 있는 축구교육은 여름철에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바이애슬론은 겨울철에 집중하여 육성함으로써 엘리트 체육인을 발굴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동지역에는 일동시립도서관이 개관되어 주말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학부모들이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교육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독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 상징적인 곳이 바로 시립도서관이다.

박 교장은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아침 자기주도학습시간을 활용해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서기록장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전교생이 스스로 책을 통해 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박 교장은 “기본이 바로 선 학교, 예의바른 학교, 청결한 학교, 인성이 바른 학생을 배출하는 학교로 가꾸기 위해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이용해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일동중학교 학생들은 글로벌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본이 바로 선 학생 생활교육을 위해 인사예절지도에 있어서 전통 공수 인사예절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청결생활지도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지킴이와 청소 실명제 운영을 통한 깨끗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이 바로 선 학생 생활교육 우수학교로 경기도교육감 표창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주1회 기본생활 습관 지도 및 주2회 명상의 시간을 운영해 포천의 일 계승, 명상자료, 명곡, 명시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있다.

특히 ‘꿈을 이루어 가는 독서기록장’을 자체 제작하여 학생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독서기록장은 1주일 단위로 책이름과 지은이, 인상적인 구절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나의 독서기록표와 목표세우기, 독서기록장 100배 활용하기,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등이 수록돼 있다. 일동중학교는 학생들의 독서기록장을 점검하여 올바른 독서습관을 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독서기록장에는 명상의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메모장도 만들어 학생들이 명상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작은 일에도 소중히 하자”를 좌우명으로 삼아 농촌학교에 오려 근무하고 있는 박 교장은 경남 함안군 칠서면 이흥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산중, 마산고를 나와 성균관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강원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 영북중학교에 첫 부임한 박 교장은 운전에서 결혼하여 정착하였으며 영북중고와 관인고를 거쳐 용진군 덕적고, 의정부중학교, 포천여자중학교에 근무 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해 박 교장은 “대입시제도가 능력위주의 시험제도로 바뀌

어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농촌지역의 공동화현상을 막고 교육여건인 환경을 개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체육교사 출신으로 우리나라 체육교육에 대해 박 교장은 글로벌 시대에 생활체육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엘리트보다는 건강인을 육성하는 체육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체육은 건강교육으로 비만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체육수업을 통해 소질을 발굴하여 운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체육학 박사가 된 제자가 있다.

박 교장은 이때가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을 때라고 밝힌다.

현재 포천시가 일동중학교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에 대해 박 교장은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이 꼭 필요하다.

학부모들에게 박 교장은 학교를 믿어주고, 이해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참아주시고 언제나 학교 문은 개방되어 있으니 건전한 의견을 주시면 수렴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참다운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신문에 대해서 박 교장은 학교마다 포로필을 소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활동 사업에 감사한다. 좋은 점을 홍보하고 안 좋은 점은 노출 안하는 것이 포천신문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잘한 것을 더욱 크게 홍보하여 주는 것이 좋다. 또 군부대와 자매결연 현황과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인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최충학력이 일동중학교인 독지가가 연간 500~600만원을 바이애슬론 육성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바이애슬론부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도 크게 보도되었으면 한다.

박 교장은 올해는 독서와 논술교육, 영어 체험교실, 생활영어교육에 집중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학생들의 직업 진로교육에도 충실하고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수업 잘 하는 선생님’

06 초등 교과 교육 운영 연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 제2청은 1월22일부터 1월26일까지 5일간 2청 관내 초등교사 210명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특별활동 등 6개 교과에 06 초등 교과 교육 운영 연수를 실시했다.

교과별 전문가, 수업 기술이 우수한 교사, 전문성이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사들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탐색하여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했다.

연수 첫날 오전에는 제2청 대강당에서 개강식과 김석희 교육국장의 특강을 실시하였다. 미래의 희망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존경과 신뢰받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업을 잘 하는 교사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사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당부했다.

오후부터는 의정부 동암초등학교 교로 연수 장소를 이동하여 5일간 교과별로 다양한 일정에 의한 연



수가 실시했다.

연수 일정은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탐색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습 자료와 매체를 활용한 실험, 실습, 체험, 활동, 실기 중심의 연수를 통하여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수업분석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수방법 개선을 위한 수업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분석 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업분석에 익숙하지 못한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러한 교사들의 경험은 앞으로 장학전문가로서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내 생명 내가 지킨다!

365일 사고예방, 안전 달력 8000 부 배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 제2청은 지난해 안전교육공모전에 참여한 우수한 포, 포스터 작품을 게재한 2007년 안전교육 달력 8000부를 경기북부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했다.

이 안전달력은 도로횡단 기본 3원칙과 함께 고압중 유체인 학생의 사고 싶은 학교 포스터 등 안전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게재하여 만들었는데 각 학교에서는 교실에 달력으

로 게시할 뿐만 아니라 매일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지도하는 계기가 되어 365일 안전사고 없는 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작, 배부하게 되었다.

안전지도 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교통안전을 비롯하여 익사, 빙상 사고, 실형실 사고 등에 대한 안전 지도가 생활화 되어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 사고 예방 의식이 높아져 안전



하고 즐거운 교실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서울대학교 농생과대 유치 간담회

포천시 1월26일 국제회의실에서 적극협의를

포천시는 1월26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유치와 관련해 포천시청내 국제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간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도농복합시

로서 수려한 자연환경, 수도권 근교지역으로 개발가능이 풍부한 최적의 친환경적 입지조건과 지원적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호간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 농생대 이현재 학장도 미래의 교육도시인 포천시를 위하여 상호간 상생의 협조로 빠른 기간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대 농생대 유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포천시에서 추진하는 선진교육의 뉴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6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명문대학 유치에 밝은 전망이 예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운국 포천시장은 1월18일 서울대 이장무 총장을 만나 신도시가 들어설 군내면과 내촌면 일대 국제캠퍼스 부지 60만평 무상 제공 및 지방세 면제, 기반시설 조성 지원, 대학건립을 위한 행정지원 등 광역적인 조건을 담은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학교운영지원비 中 동결 · 高 3% 인상

高 2006학년도 수업료 인상을 반영 인상

경기도교육청이 2007학년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한도액을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학교의 운영지원비가 5년 연속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2007학년도 수업료 인상을 반영하여 3% 인상하여 징수 한도액을 결정했다.

이로써 중학교는 5년 연속으로 17만7천840원, 고등학교는 전년보다 8천280원 인상된 28만6천920

원이 되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단위학교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 가계부담과 수업료 인상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국내경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도교육청에서 한도액을 책정하면, 각급 학교에서는 이 한도액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결정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30일 2007학년도 경기도공립중등교사(초등사서, 미임용자포함)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합격인원은 일반 국어의 29개교과와 1,519(장애 61명 포함)명으로 중등 1,511명, 초등사서 8명이며, 미임용자는 공통과목의 10개교과 50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합격자발표 공고사항은 경

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등임용시험 응시자의 개인별 성적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마당→시험정보→성적조회)에서 조회 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전 직무연수는 2월5일~2월9일(5일간)에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5개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연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31-249-0236

윤동성의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 5. 일반직급 :
 - 대표이사 : 웨프뤼센트팁 디렉터 (Representative Director)
 - 사장 : 1) 프레스티엔 (President)
 - 2) 매네이징 디렉터 (Managing Director)
 - 부사장 : 보이스 프레스티엔 (Vice President = V. President)
 - 전무이사 : 씨니어 매네이징디렉터 (Senior Managing Director)
 - 상무이사 : 매네이징 디렉터 (Managing Director)
 - 상무부(최근에 신설하는 기업이 늘고있음) : 어씨스텐 매네이징디렉터 (Assistant Managing Director)
 - 이사 : 디렉터 (Director)
 - 선임부장 : 씨니어 매네이저 (Senior Manager)
 - 부장 : 매네이저 (Manager)
 - 차장 : 어씨스텐 매네이저(최근 잘 쓰지 않음) (Assistant Manager)
 - 과장 : 섹션캡후(Section Chief, '대리'도 있으나 점차 '팀장제도' 도입이 늘고있어, 중소기업(단위)에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
- 문의 : 윤종성 (017-723-4977) yoon@male.com

함께 공부해요

明長幼之序 ⑫ (장유간의 질서를 밝힘)

退溪先生曰 古人은 事兄을 如事嚴父하여 出入扶將 하여 以盡子兄之道 하니라. 퇴계선생왕 고인은 사형을 여사엄부하여 출입부장 하여 이진자형지도 하니라.

(嚴 訥 賢 齋 齋 曰 曰 曰)

퇴계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옛사람들은 형을 섬기기를 엄한 아버지와 같이 하여, 출입할 때에도 반드시 부축하여 자제된 도리를 다 하였다.

다. 그러나 사육(私德)의 유혹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하는 마음이 점차로 희박해지고 있다.

(문의:011-354-6485)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아우가 형을 공경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거나 일부터 하고자 함쳐서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우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배우지 않고도 아는 것을 양지(良知)라고 한

양주승
본지 지문위원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함께 배우고 나누며 생활하기’

지도자료 개발 · 보급 국제화시대 공존의 지혜 실천

경기도교육청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해 ‘국어랑 친구하기(언어적응지도자료)’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세계를 꿈꾸는 교실(문화적응지도자료)’ ‘대한민국이 보여요(한국생활 길잡이)’ 등 지도자료 3종을 개발하여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에 보급했다.

‘국어랑 친구하기’와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세계를 꿈꾸는 교실’은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자신들의 나라와 다른 언어·문화·교육 과정 및 교수 방법 등의 차이 등에서 오는 부적응 현상을 완화시켜 원만한 학교 및 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한 자료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보여요’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가 한국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가이드북으로 온가족이 함께 활용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의 장학 자료 개발은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의 학생들과 소의 받는 제3국인들을 배려함으로써 국제화시대 공존의 지혜를 교육현장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이 보여요’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몽골인 들을 위해 몽골어로 번역 제작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지도 자료가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의 교육에 선도적 지침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확대 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국제적 인적교류의 확대와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서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바로잡습니다. 포천신문 제364호(2007년1월10일자) 9면 포천시민대중제작백서 발간 관련기사중 100만원이상 기부자 명단에서 누락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주)삼우석재 300만원▶장인5리마을회 100만원▶유성현 100만원▶이종기 100만원